▶▶ 매일 INDEX

4면
전주 코로나19 3대 정책
세계 석학들과 공유하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음 10월 20일) 제267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사상 첫 '8조원 시대' 열었다

국가예산 8조 2675억원 확보… 전년대비 8.7% 증가
역대 최대… 코로나 역경딛고 생태문명 대도약 견인
신규사업 352건 반영… 도 · 정치권 · 시군 '합작품'

전북도가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역대 최대 예산확보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북경제의 생태 문명 중심 재편이라는 대전환의 기로를 힘있게 헤쳐나갈 든든한 토대를 다졌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디지털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전북형 뉴딜 예산을 대거 확보하고, 의미있고 실속을 갖춘 신규사업을 국가예산에 다수 반영함으로써, "전북 대도약"을 위한 장·단기적 성과를 두루 거뒀다는 평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가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예산확보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고, '한국판 뉴딜'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정국 속에 일군 성과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국가예산으로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7조원시대 진입 3년 만에 '8조원 시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도 예산과 국가예산이 동시에 8조원 시대를 열게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전례에 없던 코로나19,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경제적 불황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치의 예산이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8.7%로 최근 10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900억원으로 추산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9.9%로 정부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직, 이원택 의원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자리해 전북의 국가예산 8조원 시대 개막을 축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실국장 등의 참석 규모는 최소화해 진행됐다.

2021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북도는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문명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도약의 완성도를 높일 주요 핵심예산 반영에 주력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새천년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미래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전북의 위상과 자존의식을 키우는 역사·문화 재조명 ▲글로벌 물류체계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변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단단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 일상을 딛고 새천년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138건 5,477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북이 특장점을 갖춘 풍부한 농생명 인프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홀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자원과 지리적 강점인 새만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농생명, 전통문화와 ICT·홀로그램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팜 시설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 개발지원센터 등과 홍수 등 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반영했다.

그린뉴딜 분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비해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통합·실증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등과 친환경모빌리티 중심의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더해 수자원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북형 뉴딜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전기차 청년일자리 사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등 안전망 강화사업도 다수 반영해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의미있고 실속을 갖춘 신규사업 352건 4,940억원을 확보해 전북대도약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3조 9,047억원가량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작지만 큰 첫걸음이다.

특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정읍·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장점마을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 등 도정 핵심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사업은 막판까지 예산 반영이 어려워 도·정치권·시군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 반영됐으며, 이를 포함해 국회 단계에서 7,253억원이 증액돼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유호상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학부모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살얼음 걸었던 '코로나 수능'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 유지

EBS 교재 · 강의 연계율 70%
도내 결시율 지난해보다 높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본 방향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문항의 EBS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이 70% 정도로 수학과 한국사는 70%, 국어는 71.1%, 영어는 73%다. 영역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연계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난히 치러졌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수능 전 이미 6차에 걸친 방송장비 점검과 낡은 장비 교체로 부정행위 및 듣기평가 오류없이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시간 이후 도착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했고, 또 시험감독관 4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드러나 교체했다. 올해 수능에는 전국 49만3,433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이 중 전북지역 응시생은 1만7,156명이다. 이들은 각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개 시험지구 및 군단위 69개 시험장 745개 시험실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렀다.

이날 도내 수능 결시율을 살펴보면 국어는 13.54%, 수학은 13.11%, 영어는 14.48%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응시자를 위한 병원 1개소 및 자가격리 응시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6개소가 마련됐다. 또한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수능 시험을 위해 운영 요원 4,679명을 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시험장 운영요원 1,655명, 시험감독관 2,676명, 호송경비경찰 및 응급구조사 342명 등이다. 특히 청각, 지체, 뇌병변 운동장애 학생 등 특별관리대상자 19명은 동암차돌학교에서 시험을 봤고, 뇌병변 등 운동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1.5배의 시험시간이 더 주어졌다.

수능 성적은 오는 23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성적 자료를 제공받은 뒤, 성적통지표를 출력해 수험생에게 배부하게 된다.

성적 통지표에는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는데,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점수만 표기된다. 다만,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 이후 생활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4개 시군 교육청별로 경찰과 합동으로 교외 생활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세부 내용은 ▲학생들의 활동이 잦은 지역 순회를 통한 생활실태 파악, ▲다중이용시설 학생출입 자제 홍보, ▲야간 및 취약시간 대 생활교육에 중점, ▲인성 인권부장 및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학생 안전망 구축 등이다.

그 효과로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 확보, ▲안전사고 및 학교 폭력 신속 대응, ▲취약기간 중 폭력·비행 등에 대한 예방, ▲관련기관과의 협력운영으로 효과적인 생활교육 실시, ▲수능 이후 호기심에 의한 탈선 예방 및 학생보호의 사회분위기 확산, ▲코로나19 감염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가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